

투데이 칼럼

쿠션언어기법

‘쿠션언어’라는 것이 있다. 생활에서 쿠션이란 없어도 상관없지만 있으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품이다. 따라서 쿠션언어는 말랑말랑한 부드러운 언어를 말한다. 예를들어 “죄송합니다만”, “번거로우시겠지만”, “번거롭지 않으시다면”, “편찮으시다면”, “불편하시겠지만”, “실례합니다만” 등과 같은 쿠션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정성이 느껴지게 하는 언어이다.

그래서 쿠션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상대방으로부터 신뢰감을 얻고 존중받을 수 있다. 쿠션언어는 대화가 성공으로 가도록 만드는 힘이 있다. 강사도 대중을 향하여 쿠션언어를 사용할 때 신뢰와 존경을 얻는다. 쿠션언어는 평소에 대화를 통해 사용하고 있어야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이거나 명령적인 느낌을 주는 대화를 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식사하세요”, “식사 안할 거예요”, 라는 말을 쉽게 듣고 또 말한다. “식사하세요” 라는 말은 명령



김 양 옥

전주교대 평생교육원 전담교수

적인 느낌을 준다. 그리고 “식사 안할 거예요” 라는 말은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말이다. 이런 말도 쿠션언어를 사용하면 “식사할 시간입니다”, “식사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식사하시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다. 비슷한 말이지만 듣는 사람으로서 부드럽고 정이 가는 말인 쿠션언어로 바꾸어 연습해보자. △능력을 치하하고 싶을 때(역시 선생님이 최고예요. 선생님이 존경스럽습니다.) △처음 만남 사람에게(인상이 좋으시군요. 좋은 분을 만나서 행운입니다.) △방문하여 만났을 때(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고마운 인사를 할 때(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헤어지는 자리에서(오늘 함께 해서 즐거웠습니다.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어려운 사람에게(항상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정찬반을 때(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미운 칭찬을 기억하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가까운 사이인 부부들도 부부싸움을 자주 하는 사람은 대부분 말을 잘못하여 싸움이 시작되고 말에 쿠션이 아니라 편차가 들어있으니 두들겨 맞는 것 같아 화를 낸다. 부부기간에 쿠션언어를 사용하면 싸움이 줄어들고 서서히 화목하게 지내게 된다. 말에도 역사사가 필요하다.

상대가 들었을 때 기쁘고 행복한 말을 준비하여 말해보자. 기쁘고 행복한 말을 건넌으니 당연히 감사와 존경이 돌아온다. 쿠션언어는 상대를 배려하는 말이니 어느 누가 들어도 기쁘고 감사하게 된다. 강사들은 원고가 없이 강단에 오르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원고를 아예 안 쓴 것은 아니다. 이미 원고를 써놓고 모두 암기하거나 소화하였기에 원고지 없이 강단에 오른 것이다. 5분간 말하기 위해서는 50분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라” 강사들에게 이 말은 진리이다. 아무리 박사하고 말변가라 할지라도 사전에 철저한 준비 없이 등단한다면 100% 실패한다. 강사는 연단에 서기 전에 강의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가를 꿰뚫고 있으면서 그것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즉 서론, 본론, 결론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 전개해 나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논문 쓰듯이 강연문 등을 잘 작성해야 스피치의 달인이 될 수 있다. 포근하고 부드러운 언어는 물론 협의적인 말투로 관계를 형성하는데 노력해 보자.

사설

현대인의 글쓰기 경쟁력

현대인의 글쓰기 경쟁력 비중이 커지고 있다. 특히 취업을 앞둔 젊은이들에게 글쓰기 능력은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다. 짧고 쉬운 글이 좋은 글이다. 복잡한 건 머릿속에 남지 않는다. 어려운 글은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 말보다 글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내 의사를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 많다.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은 처음부터 완벽한 글을 쓰려는 생각 때문이다. 뛰어난 작가도 한 번에 완벽한 글을 써내는 일은 드물다. 타고난 재능이 없더라도 쉽고 재미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우선 중앙감과 긴장을 내려놓는 것이다. 글처럼 노력한 만큼 결실을 맺는 것도 없다. 일단 짧은 글이란 한 문장의 길이가 짧은 글을 의미한다. 주어에서부터 마침표까지의 길이가 짧은 문장이다. 원포 여러 개로 연결돼 있다는 건 단문이 아니라 장문이다.

문장이 길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한 문장 안에 너무 많은 걸 넣고 싶은 마음 때문이다. 한 번에 하나씩만 담자. 한 문장 안에는 주어 하나, 술어 하나, 나가 기본이다. 짧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줄이고 쳐내고 다 듣는 연습이 필요하다. 문장이 길어지는 것은 주어를 수식하는 형용사와, 술어를 수식하는 부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형용사나 부사 같은 수식어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수식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게 풍부한 어휘력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비유비슷한 것들을 여러 개 늘어놓는 경우가 많다. 요즘 ‘짧고 쉽게’가 대세다. 글도 마찬가지로. 의외로 ‘짧고 쉽게’가 생각보다 어렵다. 뭔가를 설명할 때 잘 알고 있어야 ‘짧고 쉽게’ 말할 수 있다. 정확히 잘 알지 못하니까 길고 장황하고 애매하게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게 된다.

베트남과 화산이씨 인연

베트남과 한국에 사는 화산이씨 간의 인연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화산이씨는 시조가 베트남 왕순이다. 조선시대에 베트남에서 일어난 정변을 피해 베트남 왕순인 이용상이 조선에 귀화를 한 후 화산을 본관으로 삼았다. 경북 봉화군 창평리 충효당은 임진왜란 때 전사한 이장발(1574~1592)의 충성심을 기리기 위한 사당이다. 이장발은 화산이씨 13세손이다. 화산이씨와 충효당 그리고 베트남의 인연은 약 8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베트남 리 왕조는 중국의 속국에서 벗어난 첫 독립 왕조였다. 외세 침략에 시달리다 처음으로 독립국이 된 만큼 베트남 역사에서 리 왕조는 국가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상징적 존재다. 베트남의 정신적 지주인 호찌민 주석도 생전에 리 왕조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였다. 화산이씨의 시조인 이용

상이 바로 리 왕조 6대 영종의 아들이다. 이용상은 1224년 쿠데타를 피해 황해도 웅진군 화산면에 정착했다. 베트남 첫 ‘보트피플’인 셈이다. 그는 고려에 귀화해 화산이씨의 시조가 됐다. 그의 둘째 아들 이일창이 안동부사로 부임, 봉화에 정착했다. 이후 이일창의 후손들은 봉화읍을 비롯해 춘양면, 물어면, 봉성면 등 봉화 일대에 대대로 살고 있다. 화산이씨 후손 이장발은 19세의 나이로 임진왜란 의병으로 참전해 문경에서 싸우다 전사했다. 장인이 시신을 거둬 창평리에 묻었다. 광해군은 이장발 사후 30년 단인 1622년 통정대부 공조참의에 추증했다. 그 후손과 유림들이 충절을 기리기 위해 1760년 충효당을 건립했다. 한편 지난 5월 충효당에서 한국과 베트남 양국 주민들이 모여 애국가와 베트남 국가를 번갈아 부르며 우의를 다졌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독자제언

집회 현장 소음 기준 준수

최근 집회시위 현장에서 폭력적인 집회 형태는 거의 사라졌다. 그러나 집회 현장에서 새로운 이슈로 등장한 것은 고성시위로 인한 소음 고통이다. 확성기를 통해 쉽게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지만, 주변 주민들에게는 소음의 고통이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이지만 공공의 안녕질서와의 조화가 필요하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집회 현장에서 소음도를 일정 기준치에 따라 제한하고 있다. 주간 시간대 주거지역·의 소음 기준은 65db 이하, 최고소음도는 85db 이하로 그리고 시간대와 장소에 따라 55~95db 이하의 일정 기준치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집회 현장에서 소음기준치

를 초과하지 않는 폼수까지 등장하면서 확성기를 통해 퍼져나가는 집회 현장에서의 소음은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다. 최근 이러한 실태를 반영하여 주거지역이나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인근 집회시위 소음 단속 기준도 강화하였다. 해당 지역에서 열린 집회시위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최고 소음기준 위반 횟수를 1시간 동안 3번 이상에서 2번 이상으로, 평균 소음 측정 시간은 10분에서 5분으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집회 주최 측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주변 시민들의 생활의 평안을 보장하려는 취지이다.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만큼이나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안을 누릴 권리인 행복추구권 역시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창현 남원경찰서경비직전계경위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구호 외치는 캐나다 친팔레스타인 시위대



29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 시내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휴전과 팔레스타인 해방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